

“쌀 3차 추가 시장격리 절실”

전북농협, 2021년산 쌀 수급·가격안정 대책 논의

전북농협(본부장 정재호)은 관내 미곡종합처리장과 벼 건조저장시설 운영 조합장 5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산 쌀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24일 열린 회의에서는 △과잉재고 15만 이상 3차 추가 시장격리 실시 △쌀 생산량 3% 초과 시 의무 시장격리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 △시장격리 시 공공비축미 매입 방식 적용 △쌀 적정 생산 추진을 위한 국가 예산 반영 등을 정부에 요청하기로 결의했다.

전북농협은 지난해 쌀 초과 생산에도 불구하고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도내 쌀 생산량의 55%를 매입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장기화와 식습관 변화로 쌀 소비량은 갈수록 줄면서 재고

부담이 가중되고 있으며, 산지 쌀값 또한 수확기 대비 131% 전년 동기 대비 167%가 하락해 이종고를 겪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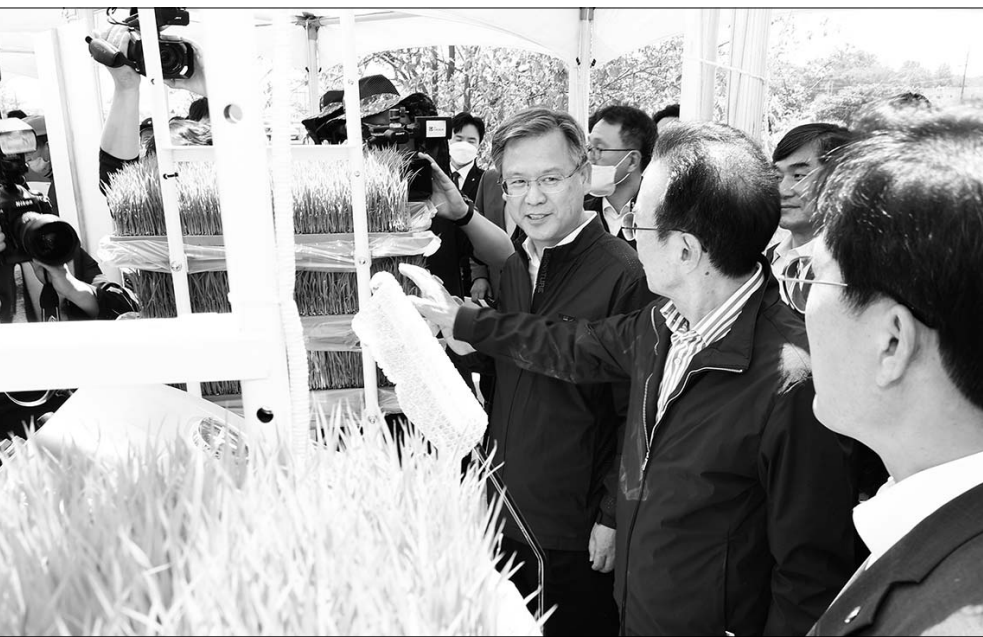
정재호 본부장은 “2차 시장격리가 끝났지만, 시장은 여전히 공급과잉 상태로 쌀값 하락이 지속되고 있다”며 “우리 농업의 근간인 쌀 산업기반 유지와 올해 수확기 농업 소득 보전을 위해 과잉재고 15만 이상의 3차 시장격리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말했다.

양준섭 전북RFC운영협의회장도 “전정부의 늦장 대응으로 농업인과 농협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했다”며 “현 정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며 즉각적인 3차 추가 시장격리를 호소했다.

/김윤상기자



전북농협은 24일 관내 미곡종합처리장과 벼 건조저장시설 운영 조합장 5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산 쌀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드문모심기 시연에 참석한 농진청 차장

김두호 농촌진흥청 차장이 24일 경기 이천시 울면농협 육묘장에서 열린 드문모심기 현장시연회에서 전시물을 관람하고 있다.

(사진=농촌진흥청 제공)

aT, 미 뉴저지 한인회와 K-Food 수출확대 모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aT) 김춘진 사장은 23일(현지시간) 이창현 미국 뉴저지한인회장과 한인회 관계자들을 만나 K-Food의 미국 시장 수출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고, 뉴저지주에서도 '김치의 날' 제정이 추진되도록 뉴저지 한인 커뮤니티 차원의 협조를 당부했다.



그리고 먹거리 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고자 세계인이 함께 지구를 지키는 저탄소 식생활 캠페인 '글로벌 그린푸드 데이'에 대해 설명하고, 캠페인 확산을 위한 동참 등 협력을 요청했다.

한편 코로나19 장기화와 물류상황 악화에도 불구하고 대미 농수산물 수출액은 올해 4월까지 6억4,300만 달러를 달성했다. /김윤상 기자

농협 남원지부·운봉농협 취약 돌봄대상자 지원

NH농협 남원지부(지부장 권오정)와 운봉농협(조합장 서영교)은 운봉읍에 거주하는 돌봄대상자 어르신들을 찾아 생활필수품 등 취약농업인 지원 사업을 펼쳤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활동은 생활불편을 겪는 돌봄대상자 어르신들이 농업인행복콜센터의 상담을 통해 지원을 요청해 이루어졌으며, 현장으로 달려간 NH농촌현장 봉사단은 현장 실사를 거쳐 어르신들의 고충을 해결했다.

권오정 지부장은 “농촌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돌봄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농업인행복콜센터(1522-5000)’는 70세 이상의 고령·취약·홀몸농업인들을 대상으로 상담을 통해 말벗 등 정서적 위로 제공, 생활불편 해소, 긴급출동 연계와 같은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대상자 등록은 인근 농·축협에서 신청할 수 있다.

/남원=김기두기자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협력

전북은행, 태전그룹과 전략적 협약 체결

JB금융 그룹 전북은행은 24일 태전그룹과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협력을 위한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태전그룹 전주 본사에서 실시한 이번 업무협약식에는 서한국 은행장과 태전그룹 오영석 회장을 비롯한 두 기관 임직원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으로 전북은행은 △헬스케어 서비스 기반 미디어터 서비스 활성화 △전북 도내 기반 신사업 발굴 △기타 공동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관계 구축 등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고객에게 새로운 금융 디지털 경험 혁신을 제공한다.

전북은행은 협약을 통해 태전그룹(태전약품·티제이팜·오앤케이)의 독보적인 헬스케어 전문성을 활용한 미디어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디지털 영역을 지속해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서한국 은행장은 “도내 우수기업



인 태전그룹과의 협약을 통해 헬스케어에 특화된 금융 서비스 개발은 물론 전북민의 특화 디지털 신사업까지 공동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전문 기업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디지털 혁신 서비스 개발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은행 미디어터 플랫폼은 나의 자산서비스, 금융 캘린더 서비스, 신용점수 조회서비스, 부동산 시세 및 실거래가 조회 서비스 등을 비롯, 생활금융 플랫폼으로 확장을 위해 자동채wise 조회와 정책자금 추천 및 실손보험 빠른청구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향후 헬스케어 및 소비분석 서비스 등 다양한 맞춤형 미디어터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다

/김윤상기자

도내 5월 소비자 체감경기 한달 전보다 소폭 상승

심리지수 104.5p로 0.8p ↑

전북 지역 5월 소비자 체감경기가 한 달 전보다 소폭 상승했다. 24일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2022년 5월 전북 지역 소비자 동향조사에 따르면 도내 소비자 심리지수는 104.5로 지난달(103.7)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

CCSI는 소비자 동향지수(CSI)를 구성하는 15개 지수 가운데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관단·향후경기전망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100보다 낮으면 장기평균(2003~2019)과 비교해 소비심리가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주요 지수를 보면 소비지출전망(112

→116)은 전월보다 상승하고 현재생활형편(91→91), 가계수입전망(99→99), 현재경기관단(78→78)은 전월과 동일했다.

다만 생활형편전망(96→96), 향후경기전망(89→87)은 전월보다 하락했다. 취업기회전망(93→98)과 금리수준전망(136→137), 가계저축전망(95→97), 주택가격전망(118→119), 임금수준전망(116→118)은 전월보다 상승한 반면 가계부채전망(102→95)은 전월보다 떨어졌다.

이번 조사는 지난 9일부터 19일까지 전북 도내 6개 시 지역 400가구(응답 373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뉴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